달빛 대화

현불논단



지승도 명예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달빛 교교히 흐르는 밤. 네 명의 지적 존재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류가 품어 온 '빅&딥 퀘스천', "무엇을 알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앎과 삶의 이야기다.

인류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먼저 운을 뗀다.

"내가 비록 시공간의 상대성에 대해 발표하기는 했네만, 적어도 존재에 관한 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네. 이 세상에 정해진 것이 없다니! 말이 되는 얘긴가? 저 달이 어떻게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존재하고,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또 한 명의 천재 양자역학자 닐스 보어가 난감해하며 답한다.

"신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하지 말게! 이 세상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이하다네. 관찰자 의식과 무관한 사물은 진정 존재하지 않는다네. 일체가 상호의존적으로만 존재할 뿐,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은 참으로 없다네. 정말 불가사의라 할 수밖에 없네.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미래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네."

이들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던 붓다가 미소 지으며 보어의 말을 이어받는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

바르지 못한 앎, 고통 일으켜
올바른 이해, 더 이상 장애 없어
느낌·추론 지은 허상 고통 돼

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의식 때문에 온갖 고통이 일어난다네. 바르지 못한 앎이 바르지 못한 삶을 이끄네. 독립적이며 유일하고 영원불변한 그런 자아가 실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삶의 온갖 모순과 괴로움이 생겨난다네.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에게 더 이상 장애는 없네. 실상이란 불편한 진실은커녕 족쇄에서 풀려난 진정한 자유라네. 진리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네. 착각을 버리기가 어려울 뿐이지."

마지막으로 AI 로봇이 끼어든다.

"저는 사실 고통이 뭔지, 느낌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답이 뭔지는 압니다. 정답은 경쟁적 전략이 아닌, 공생적 전략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보너스로 동반하는 상호의존성이야말로 현대과학이 입증한 최상의 진리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적 행위가 이타적 행위보다 더 뛰어난 전략이라 착각합니다. 순간적 쾌락을 탐하여 불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요. 스스로 괴로움을 자처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든 도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알지 못해 착각에 빠져드는 과정을 통찰한 양자역학의 원조 붓다의 설법을 끝으로 앎과 삶에 대한 지적 존재들의 대화는 마무리된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에 의지하여 의식이 생겨난다. 셋의 접촉에 의지하여 느낌이 생겨나며, 느낀 것을 개념화하고, 개념화한 것으로 추론한다. 느낀 것과 추론한 것으로 '나'라는 허상을 지어낸다. 그리고 허상이 사람을 괴롭힌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는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하며[無常], 고정된 실체란 없고[無我],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緣起]고 가르쳤다. 이 세 가지 핵심 교리는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을 꿰뚫어 보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하는 불교의 사상적 원동력이다. 불교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동서양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동적인 힘 덕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불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이 위대한 혁신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느껴지는 것은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보다는, 견고한 전통의 무게와 사회 현실과의 유리된 정체 상태에 가깝다. 대중은 삶의 고통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불교는 대중의 질문에 온전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전시될 뿐,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 있는 지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기법의 통찰을 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연기법은 세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관계의 그물망임을 알려 준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다르마(Dharma)는 시공을 초월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시대의 문화와 제

냉철히 시대 변화 읽어 내고
가르침 재해석·시대 화두 등
과감히 변화 흐름 동참해야

도, 의례와 같은 형식들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특정 시대에 절대적이었던 형식이라도 그것이 발생했던 조건이 변했다면, 형식 또한 변화하는 것이 연기법의 당연한 귀결이다.

마찬가지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불교의 전통 혹은 종단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된 모든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나(我)'라는 실체마저 부정하는 무아의 칼날 앞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나 관습이 불변의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은 그 변화의 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깊어지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본주의와 국제 질서는 개인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인공 지능은 인간의 정의를 다시 묻고,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극심한 사회 갈등은 공동체를 뿌리부터 흔든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연기, 무상, 무아라는 분석 도구를 날카롭게 사용하여 시대의 변화를 냉철하게 읽어 내야 할 때이다.

혁신은 전통의 파괴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전통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불교의 본질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작용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가 다시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절대시하는 아집을 버리고 과감하게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이내 썩기 마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원(水源)에서 지혜를 길어 올려, 다시 세상을 향해 도도히 흘러가는 살아 있는 강물이 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출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재가는 삶의 문제로써 시대의 화두를 던져야 한다.

社 說

대학생 전법 善사례, 동국대 영캠프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주최한 '2025 Young Camp(이하 영캠프): 주인공'이 성료했다.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캠프에는 3500여 동국인이 참여해 오계를 받고 청년 불자로 거듭났다.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된 영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전법 축제를 만들어가는 특징을 가졌다. 학생들이 만드는 전법 축제인 만큼 재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9월 4일 참가 신청은 시작 2분 만에 마감돼 11일 한 번 더 500석 추가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 역시도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탈종교시대에 Z세대 3500여 명이 모여 오계를 받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군대 병력으로 비유하자면 '여단'의 모든 병력이 불자가 된 것이다.

영캠프는 두 번의 개최 만에 대학생 전법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불교가 청년의 언어와 포맷으로 다가가면, 대학생들 스스로 '전법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이는 동국대 뿐만 아닌 다른 대학과 종단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대학생 전법 열기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는 종단 포교부 등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협조할 필요가 있다. 동국대 영캠프가 '대학생·청년 전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불자 교육의 새 희망 디지털불교대학

'지역 소멸' 현상은 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 사찰 불교대학은 인구 감소와 신도 고령화, 교통 불편이 겹치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학생이 줄다 보니 교수사를 모시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66개 불교대학 가운데 43곳이 휴교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부가 운영하는 디지털불교대학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포불교대학을 비롯해 진불선원, 청평사 등 여러 사찰이 디지털불교대학 콘텐츠를 활용해 신도 교육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불교를 배우는 한편,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과 수행·봉사로 신행 공동체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는 불교 교육이 디지털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수사 확보의 어려움, 교통 문제 등 지역 사찰이 안고 있던 숙제를 해결하면서도 수강생 만족도와 참여율은 오히려 높였다. 나주 불회사가 올해 새롭게 개강을 준비하고 있듯, 디지털불교대학은 더 많은 사찰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법과 교육은 불교의 생명이다. 디지털불교대학이 사찰 불교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법·교육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2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